

## 사건을 통해 조선 후기 역사의 가려진 베일을 벗긴다

2014-09-26 13:58 전북CBS 도상진 기자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국역



역모 사건 등 중죄인들을 체포 심문한 기록으로 조선 후기 정치 범죄사회상을 볼 수 있는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이 국문으로 번역돼 발간됐다.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가 국역한 추안급국안은 선조 34년(1601년)부터 고종 29년(1892년)까지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약 300년 동안 변란이나 역모 천주교, 왕릉 방화 등과 관련된 중죄인을 체포 심문한 수사기록이다.

심문 대상자는 양반에서 노비 승려까지, 직업으로는 관료와 상인, 농민, 궁녀 등이 모두 망라됐으며 당시 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돼 당대인의 생활사와 사회적 행동양식 사고방식 등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추안급국안은 특히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등에서 요약 압축된 사건을 심문 형태를 통해 가감 없이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또 추안급국안에는 사건 당사자만이 아니라 이웃 사람 친족 상전 만난 사람 등 관련된 모든 사람과 내용을 세세히 기록해 당시 사건에 대한 사회적 배경과 이면을 파악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자료가 된다.

추안급국안 번역팀



이 기록  
을 통해  
지배층의  
권력투쟁  
뿐 아니  
라 민중  
의 생활  
상까지  
살펴볼  
수 있고  
국어사  
분야는  
물론 풍  
속사 여  
성사 교

회사 등의 주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역모 사건도 진실규명과 사건 가담자들의 내면의 모습 권력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 구조도 담  
아내고 있어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원천적 정보를 제공한다.

추안급국안은 번역 물량은 원문 글자 수 672만 6천여 자 영인본 30권 분량으로 번역문은 200자 원  
고 15만 매 고전번역 단일 사업으로 최고의 결과물이며 조선왕조실록 국역 사업의 뒤를 잇는 성과  
물로 평가된다.

이 작업에는 전문번역자와 연구보조원 등 3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으며 번역과 윤문 교열 등의 과  
정을 거쳐 10년 만에 90권으로 출간됐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국역 추안급국안 간행과 함께 앞으로 번역문과 원문의 데이터를 구축  
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주소: <http://www.nocutnews.co.kr/4094791>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